

“오늘 총파업” 철도도 멈추나... 교통대란 우려

임단협 교섭 난항...노조 1600여명 오늘 순천역서 출정식 여객열차 30%·화물열차 70% 감축 등 운행 차질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화물연대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경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코레일과 노조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호남본부장은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2일 순천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와 전남·전북 조합원 2600여명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1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필수 유지업무 사업장으로 일정수준의 인원이 근무해야 함에 따라 모든 열차가 멈춰서지는 않지만 대다수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고속철 등 여객열차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측은 비상인력을 투입해도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3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노조 측은 “이번 파업으로 KTX는 약 30%, 무궁화·새마을호는 약 50%, 화물열차는 약 70%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KTX와 무궁화·새마을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이번 주말 대입 수시와 면접고사를 위해 상경하는 지방 수험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에는 서울대가 수시 지역균형전형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주말인 3~4일에는 건국대, 중앙대, 경희대 등의 수시 면접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더 큰 물류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8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운송 열차가 대체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열차까지 멈추면서 극한 물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제적 조합원 61.1%의 찬성으로 정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지난 11월 24일 정해진 원칙대로 근무하는 준비투쟁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측은 인력증원과 임단협 경선, 민영화시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임금 월 18만 7000원 인상, 3급까지 승진포인트제 도입 등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을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노조 측은 요구인 ‘승진포인트제’에 대해서도 “우선 4급 직원들까지만 시도를 해보고 철도안전에 부합되게 작용되는지 확인 후 3급 승진에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파업시 열차운행이 추가 중지될 예정이니 운행정보를 미리 확인해주시고 바쁘신 고객님께서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채팅으로 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폴봇 서비스’ 개시

1일부터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휴대전화 채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 ‘폴봇’을 12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데이터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과 접목해 폴봇을 개발했다.

폴봇은 수사관처럼 신고자에게 피해 사실을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형태로 범죄 피해자가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하면 맞춤형 진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또 자판 입력방식 이외에도 음성인식 기술도 탑재해 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으로 간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향교 비상대책 위원회가 1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정문 앞에서 ‘광주향교 유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 지봉 두 살림’ 광주향교 전교 선출 ‘내홍’

비대위-성균관 갈등에 전교 2명 비대위 “인정 못해 재선거” 촉구

광주향교의 31대 전교(典敎) 선출을 두고 광주향교 유림과 성균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지난달 A씨를 선출했지만, 성균관은 A씨를 인정하지 않고 B씨를 새롭게 31대 전교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광주향교유림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앞에서 총 궐기대회를 열고 “지역유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B씨를 전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재선거를 통해 전교를 재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향교의 전교는 오늘날 학교의 교장과 같다. 지역향교의 모든 결재를 책임지고 최고 권위를 갖는 자

리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광주향교 유림총회에서 단독후보로 나와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일부 유림들은 ▲의사정족수 미달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총회소집 통지를 한 하자 ▲투표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교 및 감사들을 선출 한 하자 등을 이유로 유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지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행사·집회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돼 이를 지키기 위해 총 유림인원 530명 중 99명만을 소집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온라인 개최, 서면 결의 대리인 위임 등의 방식으로도 지침을 지키며 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고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광주향교는 지난 10월 31일 다시 유림총회를 열고 회원 362명 중 295명(위임장 제출 148명 포함)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시 A씨를 전교로 재선임했다.

하지만 성균관은 A씨를 전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미 사퇴했다는 이유다. 향교 전교는 2년 임기의 단기로 이미 한차례 사퇴를 한 A씨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균관은 광주향교의 전교 자리를 공식으로 유권해석하고 16명으로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5일 B씨를 31대 전교로 선임했다.

성균관 관계자는 “전교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전교 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광주향교의 전교가 공식으로 나와 돌 수 없어 개입했으며 수습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했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25년’

정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정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정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자신의 폭행사실을 들켜지 않으려고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가로수 10그루 중 3그루 생육상태 ‘불량’

환경단체, 광주 동구·광산구 조사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에 있는 가로수 807그루 중 약 30%인 250그루의 생육상태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광주시의회에서 ‘시민참여 가로수 모니터링’ 성과 공의회를 열었다.

주민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가로수 모니터링단 138명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동구 4개교(중앙로, 금남로, 필문대로, 남문로)와 광산구 2개교(침단중앙로, 월계로)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 상태와 직경, 좌우길이, 하층식물 유무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동구에 있는 가로수 354그루 중 111

그루, 광산구에 있는 가로수 453그루 중 139그루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으로 나타난 가로수는 병충해가 많았고, 몸통 하부가 썩어가고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가로수 모니터링은 광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활동으로, 스마트폰 어플 ‘맘편한광산’, ‘동구제로웨이스트커뮤니티매장’에서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동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터, ㈜엔유비즈,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에서 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